

미리보기

키움 해외선물 시그널메이커 자동매매 전자책 · 전체 96쪽 중 일부

이 미리보기에 담긴 것

- 표지와 전체 목차 (96쪽 구성이 한눈에)
- 이 책이 포함하는 것 / 포함하지 않는 것
- 준비물과 지원 환경 (내 PC·계좌로 되는지 판단)
- F3 검증의 범위와 한계 (F3=편집기 문법 확인)
- 실제 본문 샘플과 예제 형식 1~2개

전체 상품에 담긴 것

- 본문 96쪽 (0~15장 + 부록, 목차·쪽번호 포함)
- 편집기에 바로 붙여넣는 예제 33개 (명시 23 + 지표 10, .t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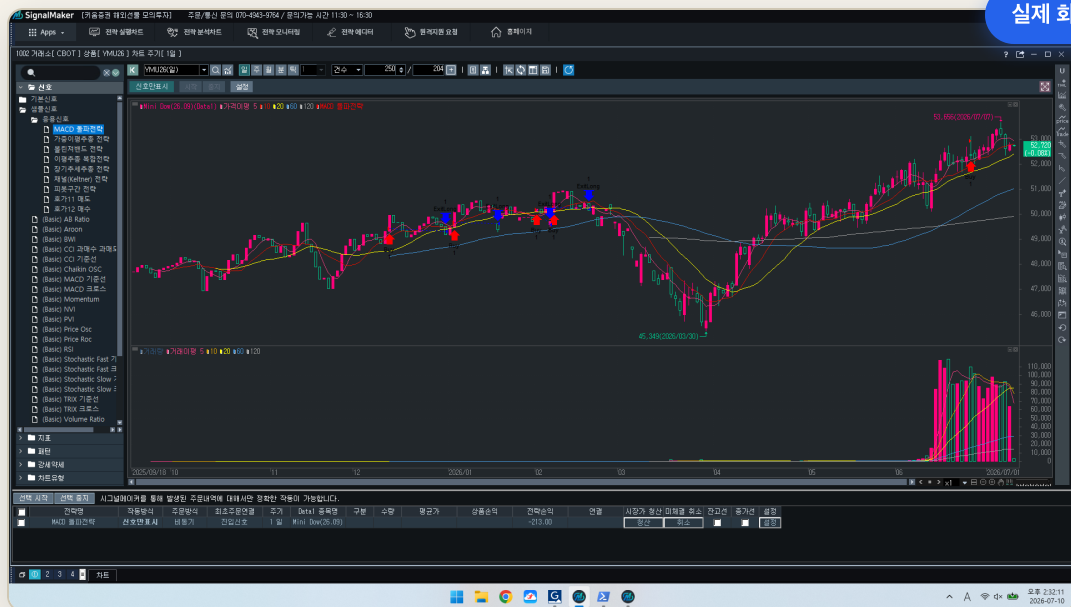
모든 실습은 모의투자 기준입니다. 명시 예제 23개·지표 예제 10개는 F3(편집기 문법 컴파일)로 확인했으며 차트 적용·모의 체결·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매수매도 신호·개인별 투자조언을 제공하지 않는 독립 교육자료입니다.

전체 96쪽 본문과 예제 33개는 구매 후 제공됩니다.

시그널메이커 해외선물 자동매매

시그널메이커로 내 매매 조건을 '주문 규칙'으로 바꾸기
세팅부터 첫 모의주문, 그리고 '백테스트를 의심하는 법'까지

- ✓ 내 매매 조건을 신호 언어 코드로 바꾸기
- ✓ 모의투자에서 첫 주문 흐름과 중지 절차 점검
- ✓ '잘 나온' 백테스트를 의심하는 법



실제 화면

목차

0장. 들어가며 — 감정으로 흔들린 조건을, 반복 가능한 주문 규칙으로	4
감정에 흔들리는 매매를 반복 가능한 규칙으로 · '좋아 보이는 규칙'의 함정 · 이 책의 구성과 범위	
1장. 시그널메이커가 하는 일, 그리고 하지 않는 일	7
조건을 주문으로 바꾸는 통역기 · 신호 언어란 ·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 트레이딩뷰와 정직한 비교	
【세팅편】 2장. 준비, 연결, 그리고 '끄는 법'부터	11
준비물 다섯 가지 · 설치와 로그인 · ★비상 중지(끄는 법)부터 · 세팅 완료 체크리스트	
【초급편】 3장. 화면 익히기 — 에디터, 차트, 함수사전	14
네 개의 큰 화면 · 전략 에디터 다섯 개의 방 · 함수사전 · F3 문법 검증	
【초급편】 4장. 첫 신호 만들기 — 이동평균 돌파를 내 손으로	18
사람 말 → 신호 언어 · 이동평균 돌파 · OnClose의 함정 · 차트에 없어 신호 확인	
【초급편】 5장. 예제를 더 따라해보자 — 세 가지 고전 전략	23
골드크로스/데드크로스 · RSI 과매도 반등 매수 · 전고점 돌파(채널 브레이크아웃)	
【초급편】 6장. 차트를 자유자재로 — 주기·종목·저장	26
봉 주기 바꾸기 · 다른 종목에 얹기 · 저장·이름 규칙·백업 · 다중종목 분할차트	
【초급편】 7장. 안 될 때 여기부터 — 초급 문제해결	30
F3 문법 에러 4종 · 신호가 안 들 때 · (모의)주문이 안 나갈 때 · MessageLog로 값 확인	
【중급편】 8장. 신호 언어의 뼈대 — 변수, 문장, 조건식	33
봉마다 위→아래로 · 외부/내부 변수 · 세미콜론 · 조건식 · [1] 이전 봉 참조	
9장. 주문함수 4종 — Buy, Sell, ExitLong, ExitShort를 절대 섞지 않기	39
Buy·Sell·ExitLong·ExitShort 역할 · 매수/매도 골격 · 방향 전환 · 신호명 추적표 · 수량	
10장. 주문타입 4종 — 신호가 찍힌 곳과 체결되는 곳은 다르다	45
OnClose·AtMarket·AtStop·AtLimit · 신호 위치와 체결 위치의 차이 · 같은 조건 비교	
11장. 자주 쓰는 지표·조건 패턴 — 그리고 Plot과 MessageLog	50
이동평균·CrossUp·Highest·RSI·MACD·볼린저·시간필터 · Plot과 MessageLog · 지표 예제 10가지	
【검증·안전 심화편】 12장. 위험관리 기초 — 손실과 노출을 확인하는 법.	65
몇 계약을 살까(수량 역산·노출 한도) · 손절·목표·트레일링·당일청산 · 강제청산 확인	
13장. 백테스트를 의심하는 법 — 숫자가 좋을수록 더 천천히	72
컴파일 성공 ≠ 수익 검증 · 신호가와 체결가 괴리 · 과최적화 · 전진분석 · 비용 3단 A/B	
14장. 모의투자 실행 — 자동주문을 켜고 끄는 운영 연습	83
시작 전 10초 멈춤 · 전략 적용·주문설정 · 동기/비동기 · 강제청산 예외 · 전략 모니터링	
15장. 모의 운영 체크리스트와 최종 프로젝트	89
장 전/중/후 루틴 · 최종 프로젝트 코드 · 한 줄씩 해설 · 검증 순서 · 마지막 당부	
부록. Signal Data —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선택 도구	95
프로그램 밖 데이터로 들어가는 작은 출입문 · 사용자 정의 종목·DDE · 과대포장하지 않기	

0장. 들어가며 — 감정으로 흔들린 조건을, 반복 가능한 주문 규칙으로

"이번엔 진짜 규칙대로 하자" — 그런데 또

새벽 2시. 못 자고 차트를 켭니다.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3% 오면 자르자. +5%에서 익절하자."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마이너스가 뜨면 손이 안 나갑니다. "여기서 자르면 딱 바닥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티면 본전은 올 텐데..." 그렇게 -3%가 -8%가 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물을 탐니다. 평단을 낮추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15%. 이제 자르지도 못합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반대도 있습니다. 어쩌다 +5% 목표에 닿았는데, 이번엔 안 팝니다. "느낌상 더 갈 것 같아서." 그러다 되돌림 한 방에 수익을 다 뺏고, 어떨 땐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목표대로 팔았으면 됐을 걸, 알면서도 못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규칙에 있지도 않은 자리에서 덜컥 삽니다. 남들 다 버는 것 같고, 이거 놓치면 나만 못 먹을 것 같아서.

다음 날 계좌를 보며 생각합니다. "난 왜 이럴까. 규칙을 정해놔도 왜 못 지키지. 매매 체질이 아닌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멘탈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손실 앞에서 냉정하기, 수익 앞에서 욕심 참기는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미루거나, 익절을 서두르거나, 계획에 없던 몰타기에 끌릴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여도 이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규칙을 못 지킨 몇 번도 계좌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전략 자체와 실행 규율을 둘 다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 — 감정이 개입할 순간을 줄이는 것

기계는 감정 때문에 주문 조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설정한 주문을 반복해 시도합니다. 통신 지연은 주문 제출과 접수 시점에 영향을 주고, 제출 뒤에는 주문 거부·미체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주문도 시장 상황에 따라 시점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규칙 밖 주문을 줄이는 설계와, 주문 뒤 HTS에서 미체결·잔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이 책이 하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 머릿속에만, 손끝의 감으로만 있던 '당신만의 매매 조건'을 — 같은 입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나만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거창한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이 조건이면 산다, 이 조건이면 자른다"를, 프로그램이 알아듣는 몇 줄로 옮기는 것. 그리고 그 신호와 주문 시도가 내 의도와 맞는지 모의투자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손으로 순간 판단할 일을 줄이고, 당신은 규칙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좋아 보이는 규칙"의 배신

여기서 딱 하나만 미리 못 박고 가겠습니다. 시스템이 같은 조건을 반복 적용해도, **그 규칙 자체가 나쁘면 손실 주문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좋은 규칙과 나쁜 규칙을 스스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 규칙이 정말 좋은지 **스스로 검증하는** 눈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그럴듯한 이름의 전략(MACD 돌파 전략)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차트에 붙여 과거 데이터로 돌려봤습니다.

총손익 -7,165 · 5번 매매해서 5번 다 손실 · 승률 0% · 최대 낙폭 -12.65%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유명 전략'을 그냥 갖다 썼을 뿐인데, 과거 데이터에서조차 돈을 잃었습니다. 남이 "이거 좋아요" 하고 건넨 전략, 유튜브에서 우상향 그래프로 보여준 전략 — 그대로 믿고 자동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책은 이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미리 의심하고 걸러내는지"를 정면으로 가르칩니다. 감정을 빼는 법(시스템화)과, 나쁜 규칙을 걸러내는 눈(검증) — 이 둘이 이 책의 두 기둥입니다. (-7,165의 정체는 검증·안전 심화편의 '백테스트를 의심하는 법'에서 낱알이 해부합니다.)

이 책의 구성 — 세팅 · 초급 · 중급 · 검증·안전 심화편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따라 하며 만드는 책'입니다. 모든 실습은 **모의투자(가상 계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모의투자는 오류와 손실 가능성, 주문 흐름을 점검하는 연습 환경이며, 실거래와는 유동성·지연·슬리피지 조건이 다릅니다.

- **세팅편** — 프로그램을 깔고 모의투자를 연결해 주문 흐름을 점검합니다. 커기 전에 **주문종지와 HTS 사후 확인 절차**부터 배웁니다.
- **초급편** — 화면에 익숙해지고, 가장 단순한 조건(이동평균 돌파)으로 **첫 자동 신호**를 모의로 내뱉습니다. "신호가 뜬다"와 "주문이 나간다"의 차이를 몸으로 익힙니다.
- **중급편** — 신호 언어 문법을 익혀 **내 전략**을 스스로 짭니다. 매수·매도·청산 함수, 주문 타입 4종, 자주 쓰는 지표 조건.
- **검증·안전 심화편** — 위험주문 함수·비용·백테스트 의심·모의 운영·수동 비상절차만 다룹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를 딛고 올라갑니다. 특히 세팅편의 '주문종지 → 미체결 → 잔고 확인' 절차를 건너뛰지 마세요. 자동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 커는 법보다 중지 뒤 상태까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이 책의 범위 —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	미포함
Signal Language 입문	실계좌 전환 지시
F3의 의미	계좌기반 자동 사이징
차트	자동 일일손실 킬
위험주문	무인 watchdog
비용	부분체결 자동대사
OOS/WF 개념	재시작 자동복구
모의 시작·중지·미체결·잔고 확인	실계좌 체결·수익성 검증

이 장의 한 줄 요약 감정으로 흔들리던 조건을 반복 가능한 주문 규칙으로 옮긴다. 이 책은 그 규칙을 모의투자에서 실행 점검하고, 백테스트를 비용·MDD·표본과 체결 가정을 함께 점검하는 분석 자료로 읽는 기준을 다룹니다.

자동매매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트레이딩뷰(TradingView)**와 그 언어인 **파인스크립트(Pine Script)**입니다. 강의도, 자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책은 시그널메이커를 다룰까요? 정직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파인스크립트)	시그널메이커
전략을 그리고 백테스트	매우 강력, 자료 풍부	가능 (이 책에서 다룸)
주문 연결	알림·웹훅 또는 지원 브로커 연결 등 별도 구성이 필요	증권사별 시그널메이커 서비스 신청·HTS 연결 경로 제공
국내 이용 경로	브로커·상품별 지원 여부를 따로 확인	증권사·상품·HTS 버전별 제공 여부와 등록 절차를 따로 확인
배우기	자료 많음	자료 적음 (그래서 이 책이 필요)

핵심은 **실행 경로**입니다. 트레이딩뷰는 전략을 그리고 테스트하고 알림을 보내는 데 강점이 있지만, 한국 증권사 계좌의 주문까지 잇는 방법은 지원 브로커·상품 또는 외부 연동 구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도 웹훅 알림 자체를 자동매매용으로 설계한 기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그널메이커는 지원되는 증권사·상품에서 HTS와 연결해, 조건이 맞을 때 설정한 주문을 제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 전송은 자동주문 상태·계좌 등록·주문설정·통신 상태에 좌우되고, 주문 접수와 체결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책이 시그널메이커를 고른 이유는 이 **국내 증권사별 실행 경로**를 모의투자에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전략 아이디어를 어디서 만들든, 지원되는 증권사·상품의 모의투자에서 주문 연결과 운영 절차를 연습하는 단계는 시그널메이커로." 이 책은 그 연습 과정을 안내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2026-07-16): 제품 기능은 한국금융IT의 시그널메이커 소개, 주문 연결 비교는 TradingView 공식 웹훅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지원 증권사·상품·신청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구매·설치 전 본인 증권사 HTS와 공식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5 증권사·상품별 이용 경로가 다릅니다

시그널메이커를 만든 곳은 (주)한국금융IT입니다. 시그널메이커 서비스는 증권사·상품별로 제공 범위와 HTS 신청 메뉴가 다르며, 어떤 경로가 현재 열려 있는지는 각 증권사의 최신 안내가 정보입니다.

현재 해외선물 시그널메이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증권사(지원 상품·모의 지원·신청 메뉴는 각 증권사 최신 공식 안내가 정보):

- **키움증권** — 영웅문G(글로벌 HTS)의 해외파생 시그널메이커(CME 해외선물·옵션). 이 책의 화면과 검증은 **키움 영웅문G 해외파생 시그널메이커 모의환경** 기준입니다.
- **하나증권** — 파생 전용 HTS에서 해외선물 시그널메이커(2015년 해외선물 시그널메이커 업계 최초 도입).
- **교보증권** — Provest K Global의 해외선물 전략 신호(자동주문 지원 범위는 증권사 안내로 확인).
- **DB증권** — 해외선물 시그널메이커.

SK증권 등은 국내 선물·옵션 중심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선물 지원 여부는 본인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한국투자·신한·LS(이베스트) 등은 시그널메이커가 아닌 자체 시스템트레이딩 도구를 제공합니다.

신호 언어(Signal Language)는 (주)한국금융IT가 만든 단일 언어입니다. 그래서 **핵심 문법과 전략 설계 원리는 증권사가 달라도 대체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함수·주문 동작·거래 가능 상품(국내 KOSPI200 vs 해외 CME 등)·시세·화면·신청 메뉴는 증권사·상품·HTS 버전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용 함수와 동작은 함수사전·F3·모의환경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당신에게 주는 실질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세팅편】 2장. 준비, 연결, 그리고 '끄는 법'부터

이 장은 손에 땀나는 실습이 아니라 **준비 운동**입니다. 하지만 자동매매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준비 단계입니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채로 주문 스위치를 켜는 것 — 그게 초보자가 실제 돈을 잃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직하게 갑니다.

증권사마다 화면이 다릅니다 — 이 책이 붙잡는 것과 놓는 것 시그널메이커는 여러 증권사와 연계되므로, 로그인·계좌 연결 화면의 세부 모습은 당신의 증권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책은 **바뀌지 않는 원리와 순서, 그리고 반드시 확인할 안전 항목**에 집중합니다. 증권사별 최신 화면 안내는 해당 증권사와 제작사의 공식 문서를 함께 참고하세요. (인쇄된 특정 화면은 금방 낡습니다. 낡지 않는 것만 담습니다.)

2.1 무엇을 준비하나 — 다섯 가지

자동매매를 '내 조건대로 모의로 돌려보는' 데까지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윈도우 PC**. 시그널메이커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24시간 돌릴 거라면 절전으로 꺼지지 않게 설정한, 안정적인 PC가 좋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던 노트북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2. **지원 여부를 확인한 증권사 계좌**. 본인 증권사·상품·HTS 버전에서 시그널메이커가 현재 제공되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한 계좌.
3. **'시스템트레이딩(자동주문) 사용 등록'**.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 계좌만으로는 자동 주문이 안 나옵니다. 증권사에 **자동매매를 쓰겠다고 별도로 신청·등록**해야 하고, 증권사에 따라 의무 교육 이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4. **모의투자(가상계좌) 신청**. 이 책의 모든 실습은 여기서 합니다. 실제 자금 없이 주문 흐름을 연습하지만, 실계좌와 체결·지연·거래 가능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신청하세요.**
5. **시그널메이커 + 전략 에디터 설치**. 프로그램 본체와, 신호 언어를 적는 에디터입니다.

팁: '모의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의는 진짜가 아니니 대충 하고 실전 가자"고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모의투자는 실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주문 흐름, 조건 동작, 중지 절차와 예외**를 점검하는 중요한 안전 단계입니다. 모의 결과는 실거래 체결이나 수익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실계좌 자동매매를 부추기지 않으며, 모든 예제를 모의로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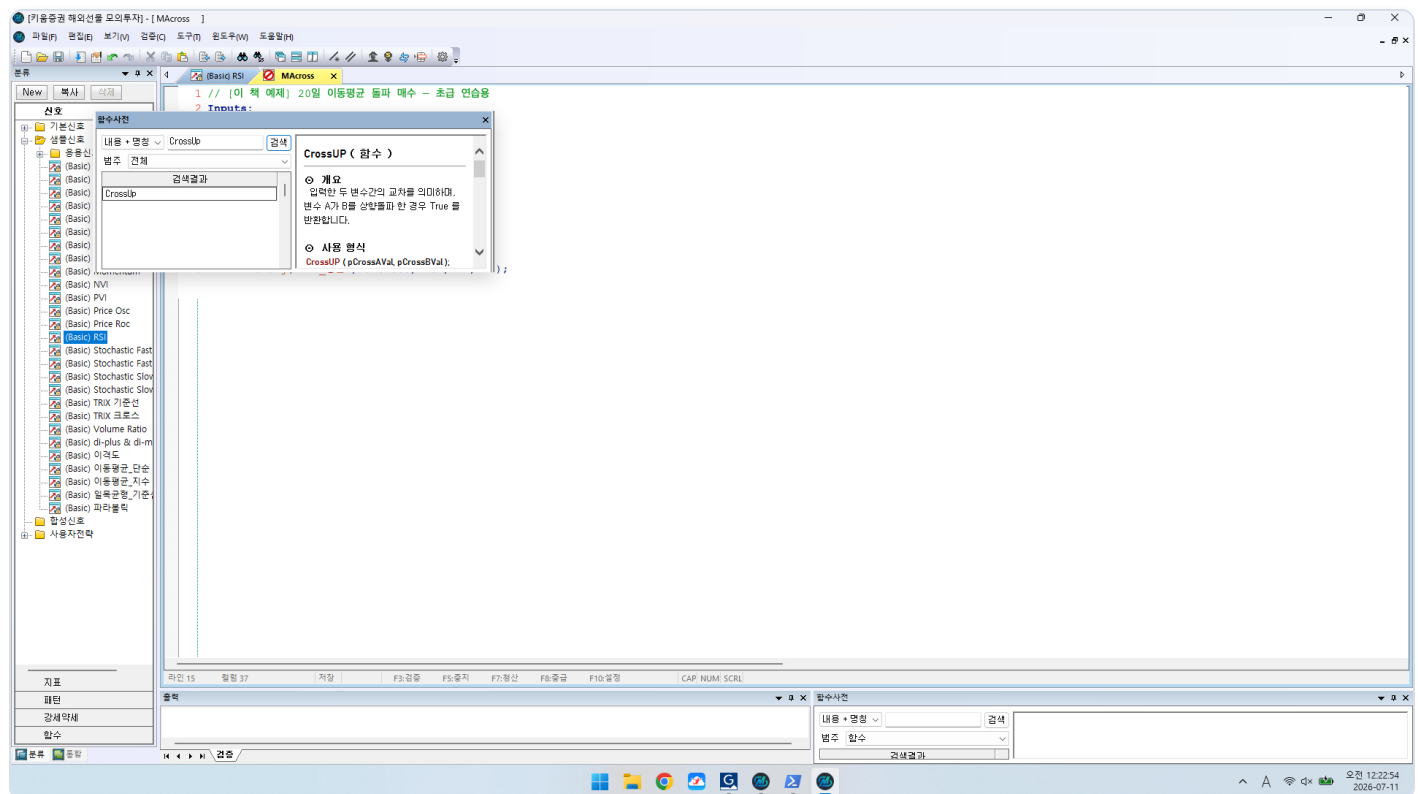
자동주문 사용 등록·모의투자 신청은 증권사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화면 하나를 여기 박아두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쓰는 증권사 HTS에서 **'시스템트레이딩'** 또는 **'자동주문 사용신청'**을 찾거나, 잘 안 보이면 고객센터에 "시스템트레이딩(자동주문)을 쓰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이때 **모의투자 계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대부분 무료 신청).

2.2 설치와 로그인 — 큰 흐름

세부 화면은 증권사·버전마다 다르니, 여기서는 순서만 잡습니다.

1. 시그널메이커와 전략 에디터를 설치합니다.
2.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당신의 증권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계좌 목록에서 **모의투자 계좌**를 선택합니다. (실계좌와 모의계좌가 눈에 띄게 구분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구분을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4. 자동 주문이 가능한 상태인지(사용 등록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함수사전은 에디터 아래쪽에 있고, 이름이나 내용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CrossUp** 을 치면, 이 함수가 무슨 뜻이고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사용 예가 뭔지 나옵니다.



이 책의 핵심 습관 하나: "함수사전 예제를 그대로 믿지 말고 **MessageLog** 로 확인하라." 함수사전의 설명은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실제로 그 함수가 당신이 쓰는 종목·시간대에서 어떤 값을 뱉는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특정 상품에서 0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새 함수를 쓸 때마다 **MessageLog** 로 실제 값을 화면에 찍어보고 "아, 진짜 이런 값이 들어오는구나"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 **MessageLog** 사용법은 중급편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그런 확인 습관이 있다"만 기억하세요.)

3.5 검증(컴파일) — F3

코드를 다 쓰면 저장하고, **F3(검증 및 컴파일)**을 누릅니다. 이걸 "문법이 말이 되는지"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 **성공하면** — 현재 편집기가 문법상 수용했다는 뜻이며, 차트 적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실패하면** — 아래 출력창에 빨간 에러와 줄 번호가 뜹니다. 에러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줄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 — 검증 성공 ≠ 돈 버는 전략. F3 검증 성공은 현재 편집기가 코드를 컴파일 가능한 형태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전략의 의미가 의도와 같은지, 주문이 실제로 제출·접수·체결되는지, 수익이 나는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문법상 받아들여지는 전략도 손실을 낼 수 있습니다(다시, 0장의 -7,165). "컴파일 성공"이라는 초록불을 "이제 돈 벌겠다"로 착각하지 마세요.

2026-07 F3 실측 범위 — 서로 다른 두 집합 11.10을 제외한 기존 명시 예제 23개는 2026-07 당시 수록 원문에서 F3 전수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 20개는 주문·위험관리 함수 기준 부분집합입니다. 별도로 11.10의 신규 10개는 2026-07-20 수록 원문에서 각각 F3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두 실측은 해당 원문의 편집기 문법 컴파일만 확인한 것이며, 전체 코드펜스나 수정본의 전수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차트 신호·모의 체결·백테스트 평가는 각각 별도 확인 단계입니다. EX19 Plot 예제는 지표 편집기에서 F3 통과를 확인했고, 시스템전략에서는 값 확인을 MessageLog로 진행합니다.

【초급편】4장. 첫 신호 만들기 — 이동평균 돌파를 내 손으로

드디어 첫 자동 신호를 만듭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당신은 **자연어로 된 매매 규칙 하나를 코드로 바꾸고, 차트에 있어 신호가 찍히는 것까지 직접 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첫 하나'가 자동매매를 남의 일에서 내 도구로 바꿔놓는 순간이니까요.

4.1 만들 규칙을 사람 말로 먼저 적는다

코드부터 쓰지 마세요. 항상 **사람 말로 규칙을 먼저** 적는 게 이 책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만들 규칙은 이렇습니다.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으면 1계약 매수한다. 다시 아래로 뚫으면 그 매수를 청산한다."

이동평균선(줄여서 '이평')은 최근 며칠 종가의 평균을 이어 그린 선으로, 추세의 방향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가격이 평균을 위로 넘어서다 = 최근보다 강해졌다"는 아주 단순한 발상이죠. **좋은 전략이라서** 고른 게 아닙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구조라서** 골랐습니다. (이게 돈을 벌어줄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세요. 우리는 지금 '기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4.2 사람 말을 신호 언어로 바꾸기

이제 이 규칙을 한 줄씩 코드로 옮깁니다. 아래는 이 책이 처음부터 새로 쓴 예제입니다. 오른쪽 `//` 뒤는 설명(주석)이니 안 적어도 되고, 나중에 읽으라고 붙여둔 겁니다.

```
// [이 책 예제] 20일 이평 돌파 매수 - 초급 연습용
Inputs:
    Length( 20 );           // 이동평균 기간 (나중에 바꿔볼 수 있게 밖으로 뺌)
Var:
    maLine( 0 );           // 계산한 이평값을 담을 상자

maLine = Average( C, Length ); // C(종가)의 Length일 이동평균

// 종가가 이평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 진입
If CrossUp( C, maLine ) Then
    Buy( "MA_매수", OnClose, Def, 1 );

// 종가가 이평을 '아래로' 돌파하면 매수 청산
If CrossDown( C, maLine ) Then
    ExitLong( "MA_청산", OnClose, Def, "", 1 );
```

한 줄씩 뜯어보겠습니다. 외우지 말고 '읽는다'는 느낌으로 따라오세요.

- **Inputs: Length(20);** — `Length` 라는 이름의 조절 손잡이를 만들고 기본값을 20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빼두면, 나중에 코드를 안 고치고도 차트에서 20을 10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 **Var: maLine(0);** — 계산값을 담을 `maLine` 이라는 빈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지표로 값을 눈에 그리고 싶다면 새로 만들 때 종류를 **지표**로 선택하세요.

```
// [이 책 예제] 증가 위치 지표 - 지표 스타디움
Inputs:
    SmoothLen( 10 );
Var:
    smoothClose( 0 ),
    rangePos( 0 );

smoothClose = Average( C, SmoothLen );

If H - L > 0 Then
    rangePos = ( C - L ) / ( H - L )
Else
    rangePos = 0;

Plot1( smoothClose, "부드러운종가" );
Plot2( rangePos, "봉내종가위치" );
```

이 코드는 주문을 내지 않습니다. 차트에 계산값을 그려 "내 조건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시스템전략에서 현재 종가와 포지션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
MessageLog( "C=%.2f Pos=%.0f", C, SignalPosition );
```

11.10 지표 예제 라이브러리 — 조건을 조립해 보는 10가지

11.1~11.9에서 지표를 조건으로 조립하고 값을 확인하는 기본 문법을 익혔습니다. 여기서는 함수사전에서 지원을 확인한 추가 지표로 진입·청산 조건을 구성한 예제 10개를 모았습니다. 각 예제 끝의 '확인'에서는 성과분석·비용으로 결과를 읽습니다.

이 절에 실린 원문 10개는 2026-07-20 SignalMaker 전략 에디터에서 각각 F3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조건이나 입력값을 바꾼 수정본에는 다시 F3를 실행합니다. F3는 편집기 문법 컴파일 확인이며, 차트 신호·모의 체결·백테스트 평가는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시그널메이커 시그널언어는 일목균형표 함수를 제공하지 않아 이 예제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1. 볼린저밴드 예제 — 직전 저가의 하단 밴드 접촉 뒤 현재 종가를 확인한다